동티베트의 산맥
Mountains of Eastern Tibet

Yann Bigant, 2015





<동티베트의 산맥>은 중국의 외딴 산맥을 한 달간 자급자족하며 걸으면서 촬영한 작품으로 1940 년대 생산된 롤라이플렉스 중형 카메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필름 이미지를 디지털 네거티브로 현상한 10 개의 사진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처음에는 떠나야 한다는 느낌 뿐이다. 일단 출발을 하고 나니 앞으로 가야 할 상상 속 목표지점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 상상의 목표점은 계속 갱신된다. 넘어야 할 계곡이 빼곡하다. 그러나 이들 목표점이란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과거와 미래라는 관념은 천천히 사라져 간다. 오로지 '지금, 여기' 의 느낌만이 마음 속을 가득 채운다.

티베트 동부의 촐라 산맥에서 한 달간 걷기. 높은 계곡을 오르고, 우뚝 솟은 산 기슭을 지나, 구름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산길을 따라갔다. 사회의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주변 환경을 통제하거나 기대를 투사하려는 습관적 시도를 멈추게 된다. 풀, 바람, 바위, 차가운 시냇물.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로를 날려주고 을 날카롭게 만드는 현장성을 불러일으킨다.

산은 우리에게 자연의 예측불가능성을 상기시켜준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와 산은 하얗게 물들고 있다. 이 계곡에,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에 경배를 하고 욕구가 솟아난다. 산의 요람에서 느낀 생생한 비전을 표현하고 계곡 주변으로 높게 솟은 원형적 대지를 재창조한다. 톨킨의 타니케틸부터 출입이 금지됐던 티베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탐험가들의 시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자극하는 상상력의 메아리.

다시 돌아오자 느껴지는 거리감. 닿을 듯 생생하던 지척의 바위와 산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돌아온 이 장소도 멀게 느껴지기는 매한가지다. 마치 우리의 일부를 그 높은 계곡에 맡겨두고 온 것처럼. 돌아온 이곳 에서 바라보는 그곳의 사진들은 이제 상상 속의 이미지로 자리잡고, 상상력은 이미지들을 더 풍부하게만든다.

Translation courtesy of Dong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Yeongwol, Korea.
Full series and prints inquiries: https://yannbigant.fr/fr/projects/mountains-eastern-tibet/